

은행권 막히니...제2금융권 가계대출 30배 급증

광주·전남 1~5월 8682억...은행권 9817억 등 2조 육박 금융권, DSR 한도 일원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서

올 들어 광주·전남 신규 가계대출이 코로나19 확산 첫해보다 7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4% 가장 줄었지만 은행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2금융권) 대출이 전년의 3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신규 가계대출이 86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129억원)보다 66.2%(7372억원) 증가했다. 광주 신규 가계대출은 4384억원에서 8917억원으로, 2배 수준(103.4%↑)으로 증가했다.

전남 가계대출은 9584억원으로, 1년 전(6745억원)보다 42.1%(2839억원) 늘었다. 올해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은행권 대출금은 14% 가장 줄었지만 2금융권 대출은 3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 가계대출의 53.1%에 달하는 9817억원이 비은행권에서 발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조1439억원에서 9817억원으로, 14.2%(-1622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5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말 잔액(24조1836억원)보다 309억원 감소하면서 '미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올해 1~5월 지역민들은 2금융권에서 868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전년(-309억원)의 30.1배 수준으로 대출금이 증가했다. 예금은행에서의 대출금은 줄었지만 비은행권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 신규 가계대출(5월 기준)은 2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 같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 당국은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으며, 업계도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 금융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협은 지난 23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고, 지역본부에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 신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율관리를 주문한 만큼 7월 중 가세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규제 강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일원화하고,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출 증기 물류비 지원 중기부, 내달 2일부터 접수

수출을 위한 물류비용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물류난이 계속되자 정부가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물류비용 수출바우처(쿠폰) 사업'을 통해 780여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물류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상·항공 운송비, 운임보험료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일반물류 지원'과 미주 서안으로 가는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제 해운선사(HMM)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및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장기운송계약 지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기부는 기업별로 수출 규모와 물류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 대책 필요”

현대경제연, 경제력·혁신 능력·재정 등 광역 시·도간 격차 확대

경제력, 혁신 능력, 재정 등 부문에서 국내 광역 시·도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만큼 효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펴낸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경제를 지역내총생산(GRDP), 일자리, 혁신 능력, 재정, 인구 5개 부문에 걸쳐 비교했다. 1990~2019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GRDP를 보면 중경, 충북, 충남, 제주 4곳은 전국 GRDP 대비 비중이 확대됐지만,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의 비중은 하락했다. 연구원은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았다. 전국의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가 2006에서 2019년 사이에 123.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주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제주 등 8곳은 종사자 수 증가 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원은 이어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를 활용해 광역시·도의 혁신 능력을 비교했다. 종합지수가 제일 높은 경기를 100으로 잡았을 때 서울, 대전, 경북 3곳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모두가 평균 수준인 47.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어 재정자립도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2015년에서 작년 사이에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또 2010년과 2020년 지역별 인구를 비교해보면 광주, 전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 경북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다수의 광역시·도는 현재의 경제 여건은 물론 미래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유출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재평가해 영향력 큰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해남 수재민 힘내세요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은행장은 지난 23일 해남군(군수 명현관)을 찾아 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고 수재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사랑꾸러미' 200상자를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사학연금 하반기 채용 28일~내달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올 하반기 정규직·공무직·체협형 인턴 채용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정규직 6명(취업지원대상자 4명·장애인 2명), 공무직 4명(비서 3명, 웹디자인 1명), 체협형 청년인턴 24명(일반 18명, 장애인 6명)이다. 지원자격은 정규직 경영·행정·사무 채용분야의 경우,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당자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모든 채용에서 성별·학력·전공 제한은 없다. 지원자격·근무조건·처우·우대사항·전형별 평가내용 등 자세한 채용공고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사 지원은 해당 홈페이지(tp.scout.co.kr)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력 그룹사 'ESG 경영' 강화 잇따라

한전KPS 'ESG 위원회' 신설·한전KDN 사회적 가치 협의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그룹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강화 활동을 잇따라 펼쳤다. 한전KPS가 ESG 경영을 총괄할 'ESG 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한전KPS 이사회는 8차 회의를 열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ESG위원회는 환경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

회적 책임 이행, 윤리 및 투명경영,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ESG 경영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사전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최근 올해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어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인권경영 범위를 협력회사까지 확산하며 ▲인권경영 이행체계 개선 ▲인권존중 문화 정착 ▲예방적 인권 개선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3일까지 닷새 동안에는 임직원 뿐만 아니

라 자회사 및 상주 협력회사 직원까지 참여하는 인권·정령·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한전KDN은 이달 22일 나주 본사에서 '2021년도 제1차 사회적 가치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가치협의회의는 최지현 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정책실장, 박운수 노무사, 김용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소장, 강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문위원 등 9개 분야 외부위원이 선임됐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검토하는 등 ESG 경영 전반을 논의한다. /백희준 기자 bhj@

로또복권 (제97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2	26	31	37	41	42	2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12,742,750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92,468,024		42		
3	5개 숫자일치	1,720,717		2,25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7,757		
5	3개 숫자일치	5,000		2,003,966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용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